



許 愼 九 / (株)金星社 社長

## 技術開發을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

의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던 甲子年도 이제 거의 저물어 마감할 때가 되었다. 항상 이맘 때면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의 사업설계를 위하여 더욱 분주해진다.

한국 전자산업계의 일원으로서 한 해를 다시 돌아보니 아쉬움과 보람이 엇갈린다. 올해 우리 업계는 결코 쉽지 않은 시장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시장개척의 결과로 30% 정도의 성장을 하였고, 특히 수출이 40%신장하였으며 年初에 정한 수출목표액 44억弗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이래 지속되어 오던 경기회복세가 하반기 이후 둔화되어 국내수요가 위축되었으며 앞으로의 경기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특히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 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年初 본 지면에 우리 업계가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하여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는 한두해만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므로 비슷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기술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품의 고급화, 다양화, 국제경쟁력 향상, 고부가가치제품 지향 등은 반드시 기술개발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科學技術立國」이라는 정부의 기본정책 목

표에 따라 정부당국, 민간기업, 연구기관, 학계가 一體가 되어 전력질주를 하여 괄목할 만한 기술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지난 한해 동안 金星社도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의 결실로 '84年 전자부문 특별전시회에서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한 DBS(위성방송수신기), 광학식 pick-up Deck Mechanism을 비롯하여 Digital TV, 8mm VTR 및 16bit microcomputer 등의 개발에 성공했으며 고품위 TV, VDP, 32bit microcomputer 등의 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것들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주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는 전자산업에서는 한시라도 기술개발에 태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해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어제, 오늘에 비롯된 목표이거나 말로만 떠든다고 달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닌 이상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도록 기업이 기존사업분야에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의 정책지원과 학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선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전자산업은 이제 GNP의 7%,

수출액의 17%를 차지하는 이 나라의 핵심, 성장산업이다. 국가경제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전자분야의 첨단, 신기술 개발은 이제 국가 전체의 큰 바램이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선 이 나라의 전자산업은 첨단기술에의 도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일대 전환기에 서있다. 70년대 후반부터 세계전자산업은 Computer & Communication, Mechatronics, Optronics 등의 새로운 분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였고, 반도체 소재 등 기초부문의 급격한 기술개발과 더불어 선진국의 기술보호 및 기술이전기피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더우기 과거 70년대 세계전자산업을 주도해 온 가정용 전자부문은 선진국·후진국간의 상호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전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산업용 전자부문 특히 첨단 전자분야에서의 경쟁력조기 확보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외화가득률과 부가가치가 높고 두뇌집약적인 첨단기술산업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다. 본인은 우리나라가 냉혹한 세계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주도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차원의 기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정책기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이 기술정책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기업 스스로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계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배출하고 해외유학, 연수 등을 통하여 선진국의 앞선 기술력을 배우고, 우수한 해외두뇌를 적극 유치하며, 해외기술 거점을 늘려 급변하는 기술정보를 재빨리 흡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첨단기술의 자체 개발 노력과 병행하여 선진조국의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

인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해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IRI) 회장으로서 業界 代表들과 함께 日本을 방문해 일본의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키 위해 노력한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美國이 자국산업 보호를 앞세워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일본이 부메랑 효과를 외치며 경제하는 상황에서 선진기술의 도입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기 이익에는 냉엄한 선진국의 기업전략을 인식하고, 상호 互惠할 수 있을 때, 기술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日經신문과의 Interview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술

개발전략의 한 방법론으로 국제분업을 강조한다. 첨단기술 산업에서 연륜이 짧은 데다 선진국에서 최첨단기술의 이전을 꺼리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로서는 국제분업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부터 기술축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즉, 국가상호간에 필요한 분야에서의 OEM생산, 판매제휴, 제품 공동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제휴와 기술이전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새해에는 불투명한 경기와 밝지 않은 시장환경을 극복하고, 한국 전자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는 물론 관련기관의 협력과 건투를 기원하는 바이다.

